

성적 엉망 '졸업반 증후군' 합격취소 날벼락

■대입 가이드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서 12학년 2학기 학점이 안 좋을 경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1월15일을 기준으로 많은 사립대학이 대입지원서 마감을 했다. 미리 원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12학년 학생들은 12학년을 마칠 무렵이 되면 '졸업반 증후군'(Senioritis)에 빠져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다. 졸업만을 생각하고 학업은 멀리하며 더는 대학에서 자신들의 성적에는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학업에 대한 동기를 잃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건장할 수 없이 떨어지고 만다. 2학기가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리 알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2학기 초반에 맘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Senioritis(시니어라이타이스)라고 하는 졸업반 증후군은 입학 원서를 제출한 고교 시니어들이 더 이상 공부를 계속 잘 해야 한다는 동기를 잃게 되고 졸업만을 생각하는 증상이다. 명문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던 학생이 졸업반 때 받는 한두 개의 B에는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C나 D 또는 F를 받는다면 '졸업반 증후군'이라는 이

당연히 그 조건에 어긋나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12학년을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에 서있다. 새가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날갯짓을 하며 날 수 있듯이, 이제 알을 깨고자 하는 도전적인 정신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시작의 문 앞에 와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 한다. 모든 학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입학원서 제출 후 공부 포기 F학점 받아 대학 합격증 '지속적·성공적 학습' 조건부

유로 설명이 될 수 없다. 대입 지원에서 시니어들에게 12학년 때의 최종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지원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졸업반이 된 학생들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와 테스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합격 통지가 오더라도... 3월과 4월 초가 되면 많은 대학들은 합격 소식과 함께 학생들에게 입학할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같이 보낸다. "당신의 합격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학업 수행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다. 학생의 의무는 공부. 공부를 꾸준히 열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건부 합격이다.

물론이고 시간이 허락하면 인턴십이나, 경험을 쌓기 위한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12학년 2학기가 되면 많은 시니어들이 그동안 참여했던 봉사활동이나, 스포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들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지원자가 불합격이 되었거나, waiting 리스트에 있게 되었을 때, 이를 합격자 선상으로 어필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2학기 때의 활동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턴십이나 직업 경력의 집중된 경험은 훗날 목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졸업반 즉 12학년 말까지의 성적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9~11학년을 버텨낸 지원자들이 나태해져 '다 된밥에 재 뿌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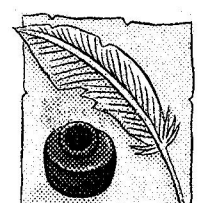
의 신입생 각각 25%, 50%가 2학년 과정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이같은 현상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 전체의 등급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입학 사정관들은 수년간의 관찰에 따라 12학년의 성실도에 큰 점수를 매긴다. 최종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대학측의 요구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졸업반이라고 대중 설령설령하다가는 원하는 대학 문턱에서 좌절할지도 모른다. 반드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와 시험준비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학 지원서를 보면 12학년 수강 과목들을 기록하는 난이 있다. 12학년에 듣는 수업의 질과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함이다. 일부 학생들은 1학기가 지나 AP과목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AP라는 수준 높은 수업을 성실히 마치는 것이야말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상이다. 가능하다면 듣고 있는 12학년 AP과목들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대학 학점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불합격의 예

- 1. 몇년 전 어느 12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12학년 2학기 성적이 급격히 떨어져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상담을 요청해 왔다. 보통 겨울방학이 끝나고 1학기 말 고사를 보는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지만 방학 전에 이미 시험을 끝내고 성적표를 발송하는 학교들도 있다. 성적표의 주인공은 11학년 성적도 전년에 비해 떨어져 대학 선택에서 불리한 입장이었다. 원하는 대학에 지원서를 발송했지만 12학년 2학기 성적에서 두드러진 하락을 보였다. 따라서 이미 합격한 대학에서 다시 불합격시키겠다는 연락을 한 것이다.
- 2. 한 학생의 경우 SAT 성적은 2,130점으로 학교 성적에 비해 좋은 편이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SAT 성적이 GPA보다 높을 경우 꼼꼼히 조사한다. SAT 성적이 학교 성적보다 훨씬 높은 학생은 대부분 학교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학습관리에 게으른 경우가 허다하다. 혹은 지적 수준은 뛰어나지만 노력파가 아니거나 책임감이 결여된 학생일 수도 있다. 이런 부류의 학생들은 일단 대학 입학에서 불리하다. 합격할 만한 대학에서 불합격된 케이스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만약 12학년 성적이 푹 떨어졌을 경우에는 특히 AP 성적을 아주 우수하게 받으면 합격 선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고 레터를 받으면 바로 대입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여 어필 레터를 준비하도록 하라. 불합격 통지를 받고 그냥 포기해 버리지 말고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자. 실제로 12학년 성적으로 불합격되었던 크리스는 그가 받았던 AP 성적과 함께 어필을 하여 합격 선상으로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그냥 포기해 버렸던 앤디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서 1년을 성적관리를 한 후 편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1년을 다니면서 정말 인건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고 믿고 있지만,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도를 찾았더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을 테니까 말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견디어 낼 때 비로소 골인을 할 수 있다. 포기하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한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5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제35회 미주 한국일보 문예작품 공모전

21세기를 선도해 가는 한국일보 미주본사는 문학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문예작품 공모전을 미전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의 제35회 문예공모전은 미주문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등용문으로 그동안 역량있는 신인들을 다수 배출, 이민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가 창간기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예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문예잔치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갈것입니다. 미주 최고 권위의 신인작가 등용문에 작가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미주 한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응모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생활수기	시	
내용	제한분량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3편 이내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상금	당선작	1편 \$2,000	1편 \$1,000	
		가작	2편 각 \$1,000	1편 \$500	2편 각 \$500
		장려상		1편 \$300	2편 각 \$200

- 2. 마감일자 :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마감일 소인 유효
 - 3. 보내실 곳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4. 당선작 발표 : 2014년 6월 7일 (토요일)
 - 5. 시상 : 6월말~7월초 (추후개별통보)
 - 6. 문의 : (323)692-2000, 2068
- 응모요령**
- * 모든 응모작품은 어떤 지면(인터넷매체포함)에도 발표할 적이 없는 순수한 창작 이어야함. (표절하거나, 동일한 작품이 다른 매체에 중복된 투고 사실이 밝혀지면 발표 후라도 당선을 취소합니다)
 - * 응모작품 겹봉에는 "문예공모 담당" 이라 쓰고 작품 맨 첫 장에 별도로 응모분야 및 작품 제목을 명기하고, 인적사항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이름이 필명인 경우 본명을 따로 써주십시오.
-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인터넷, 팩스로는 응모작품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